

# 농어촌지역 성당 내 성체조배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지역 천주교성당의 성체조배실을 중심으로 건축 요소 분석 -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ucharistic Adoration of the Catholic Churches in Rural Areas

- Analysis of Architectural Elements of Eucharistic Adoration in Catholic Church in Gwangju and Jeonnam -

강 형 주\*  
Kang, Hyung-Ju

신 용 주\*\*  
Shin, Woong-Ju

### Abstract

Religious architecture in the Gwangju and Jeonnam regions played the role of local culture, and in particular, cathedral architecture maintains a consistent religious context and seeks to integrate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verall data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the Eucharistic adoration, which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religious aspect and the space in the cathedral, and used it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local cathedral architecture. The Eucharistic adoration was activated starting from the time when the Eucharist storage room was placed in the Middle Ages, and in 1979, when Pope John Paul II published a letter, and Bishop Na Gilmo of Incheon introduced the Eucharist, the Eucharistic adoration movement was activated in parishes across the country. However, regarding the Eucharistic adoration, a way to use its spatial meaning and religious use is still unknown, even to its believers. The Eucharistic adoration of the cathedral contains the main spiritual function of managing faith rather than the functions of mission, fellowship, and office work. An approach which composes the liturgical spaces in various architectural planning methods is necessary, but the fundamental and religious meaning must not be abandoned.

주요어 : 광주교구, 성당건축, 성체조배실, 특성, 요소

Keywords : Gwangju Diocese, Catholic church, Eucharistic adoration, Characteristic, Elemen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도구로서 그 시대가 갖는 문화와 사회를 그대로 들어낸다. 종교건축은 서양의 신앙적·정신적 모티프를 가지고 한국에 선교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대적 한국건축은 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기반을 가졌다. 지역적 관점으로 시대의 통합과 공동체의 역할을 하면서 문화공간과 행사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신앙적인 전례, 기도, 성사 등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공간적 특성을 가졌고, 이는 그 시대의 정신을 담은 기록건축물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두고 있다.

그중에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보수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앙의 설교 및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sup>1)</sup> 이후 전반적인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차

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전례적인 의미, 지역 예술의 차이 등을 수용하였다. 개별적인 방식이 이제는 수용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한국의 상황을 볼 때, 경제적인 발전, 다변화의 인정, 획일화된 사회의 부정 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전남 지역의 종교건축은 지역문화의 역할을 하였고, 특히 성당건축은 일관된 신앙적 맥락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당 내부공간에서 신앙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성체조배실(eucharistic adoration)의 공간 특성과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전반적인 자료를 조사·분석하였고, 본 연구 내용이 지역의 성당 건축 설계에 있어서 성체조배실에 관한 설계 지침 또는 방향성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대상은 성당건축물로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주로 현장답사를 통한 사진 촬영 및 실측, 성당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필요

정치의 제 역할 찾기, 개별 민족과 사회 존중, 세계 평화, 개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 다른 종교와의 대화, 전례 개혁을 비롯한 교회의 현대화 등을 추구했다. 한국 가톨릭의 조상 제사 수용, 각국의 토착화된 성모상 등장, 미사에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 사용, 평신도의 역할 부각도 모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일이다.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건축학석사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osun University, wjshin@chosun.ac.kr)

1) 1962년 요한 23세 교황이 소집했으며 1965년 바오로 6세 교황 때 폐막한 제2차 세계 공의회, 이 공의회는 교회의 자각과 쇄신, 신앙의 자유, 종교와

시 고사진, 공사 도면, 도서, 논문 등의 기록물 분석을 포함하였다. 공사로 되어 있는 소규모의 건축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추후 공사 예정이거나 증축·신축에 의한 소멸한 건축물 또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당의 기본적인 예배의 공간이 아닌 학교, 수녀원 등은 성격을 다름으로 규정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광주대구구<sup>2)</sup>에서 지정된 140개의 지정된 성당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Fig. 1><Fig. 2><Table 1><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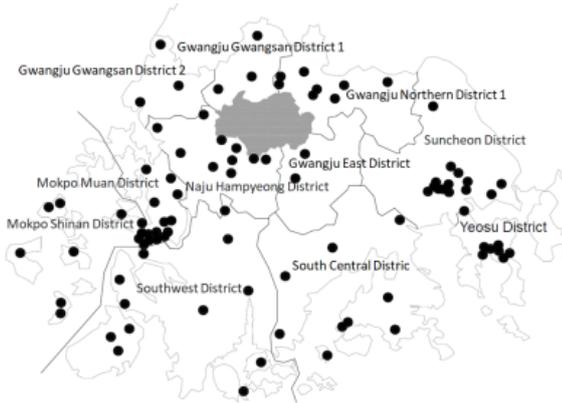


Fig. 1. Jeonnam Cathedral's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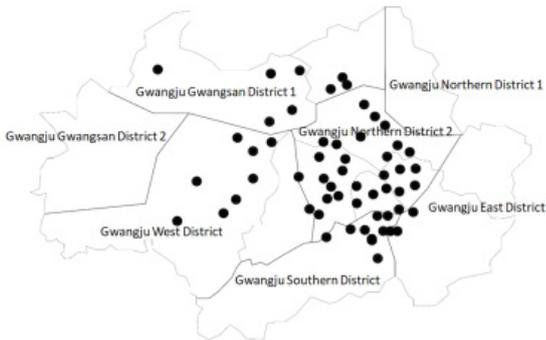


Fig. 2. Gwangju Cathedral's Location

Table 1. Number of Cathedrals by District

연대	- 1950	1951 -1960	1961 -1970	1971 -1980	1981 -1990
개수	3	15	10	4	13
연대	1991 -2000	2001 -2010	2011 -2021	전체	
개수	26	28	41	140	

Table 2. Number of Cathedrals by District

지역·지구	Gwangju East	Gwangju West	Gwangju South	Gwangju North 1
개수	8	13	9	10
지역·지구	Gwangju North 2	Gwangju Gwangsan 1	Gwangju Gwangsan 2	Gwangju East
개수	8	9	10	9
지역·지구	Mokpo Muan	Mokpo Shinan	Naju Hampyeong	전체
개수	11	13	11	
지역·지구	Suncheon	Yeosu	South Central	140
개수	13	8	8	

## 2. 광주·전남 지역의 성체조배실

### 2.1 성체조배실의 역사

성체조배<sup>3)</sup>인 성체(Blessed Sacrament)에 대한 흠승과 존경의 표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됐다. 그리스도교 초창기 교회 건물의 성당 중심은 제대(altar, 祭臺)였고, 감실(tabernacle)은 성체 보존을 위한 단순한 보관으로 여겨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성체 안의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체 공경에 대한 신앙은 급속도로 확산하였고, 전례의 쇠퇴에 기인한 것이었다. 중세 중기를 지나 다양한 형태의 감실이 만들어졌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는 성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실을 잠글 수 있는 장치를 하라고 명하였다.<sup>4)</sup>

감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성당 제단 앞에 탑(tall towers, Sakramentshäuser in German)의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감실을 모셨으며 성체에 대한 다양한 신심행사도 나타났다.

트렌토 공의회<sup>5)</sup> 이후 가톨릭교회의 성체신심은 한층 강화되었고 그리스도 현존의 상징이 되는 감실은 더욱 화려하고 장중하게 치장되었으며 성당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감실이 세워지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를 중심으로 성체신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체공경이 활발하게 펼쳐졌고 이와 같은 성체신심은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체신심의 지나친 발전은 오히려 영성체를 소홀히 하고 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차 바티칸 공의회(Concilium Vaticanum Secundum) 이후 교회는 수용을 원칙으로 한 팽창과 외적인 발전으로 신앙적 공허감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시대적 요청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다시금 신앙을 돈독하

2) 1933년 골롬반회 광주진출, 광주교구 설정 준비를 통해 시작되었고, 1937년 대구교구로부터 광주지목구가 설정되었다.

3) 성체조배는 감실 안에 모셔있거나 현시된 성체 앞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경배를 드리는 신심행위를 일컫는 말로 가톨릭교회의 전통이다.(출처: 가톨릭대사전)

4) 1215년에 인노첸시오 3세에 의해 그리스도 신자의 1년 1회 이상의 고해 및 성체성사 배령을 의무화하였다.

5) 1545-1563, 이탈리아 트리엔트에서 개최된 종교회의, 교령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개신교)을 이단으로 정의하고 공식적으로 규탄하고, 로마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주요성명을 발표함.

게 하도록 성체조배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sup>6)</sup>

공의회를 소집한 교황 요한 23세의 2가지 원칙은 ‘Aggiornamento (up-date)’와 ‘Participatio Actuosa(Active Participation)’로, 이 쇄신과 능동적 참여는 교회의 전례와 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sup>7)</sup>, 이에 따라 오늘날 성당 대부분에서는 제대와 감실을 분리하고, 감실은 제대 뒷벽 좌/우측에 두거나 성당 한쪽 구석에 작은 자체 제대, 받침대 위 또는 독립된 경당 등에 두어 감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 2.2 성체조배의 활성화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Ioannes Paulus PP. II)가 ‘성체의 신비와 흠숭에 관하여’라는 서한을 발표하고, 세상 오류와 죄악을 갚기 위해 성체조배와 목상이 계속되기를 강조하자 미국 예수성심성모 수도회의 루치아 마르틴 신부가 텍사스주 갈베스턴 휴스턴교구에서 24시간 고리를 이어 신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성체조배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현재 각 교구의 성체조배는 현시(顯示, Exposition)된 성체 앞에서 지속해서 성체조배를 하며 성체 공경과 성체 신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한국은 1983년 당시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Bishop William John McNaughton, M.M.)가 메리놀회백제 라르도 신부에 의해 이미 도입한 성체조배회를 주교회의의 정기총회에서 소개하고, 이후 각 교구장 요청으로 전국 각 본당에서 성체조배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 2.3 성체조배실의 정의 및 현황

성체조배실은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개방적이고도 개인적인 공간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침묵 속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 나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전국 각 본당 및 성지는 신자들의 성체신심 함양과 성체공경의 의미를 품은 성체조배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교회의 특색을 살리고 말씀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들이 생겨났다.

오늘날에 와서는 성체를 성당 제대(祭臺, altar)와 떨어진 영역에 모실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어서 중세기식 성체 보관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도둑 방지를 위하여 성당 본당을 잠그고, 교우들의 성체조배를 위하여 성당 구역 내 작은 방에 성체조배실을 마련하고 거기에 성체를 모셔 두기도 한다. 하지만 성체조배실을 두고 신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로 신자들이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체험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영성체를 통해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를 느끼지 못하는 피상적이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성당에서의 성체조배실 확보의 어려움, 성체 현시에 대한 부담감도 성체조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6) 남연구, 성체조배를 위한 경당의 이상적인 조명 밝기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1), 2014, pp.470-476.  
7)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1994, p.172.

## 3. 성체조배실의 건축적 특성

### 3.1 전례 공간 구성

성당의 형태와 평면구성은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미사에 핵심이 되는 중앙 제대 공간을 기준으로 신자들의 영역인 회중석(Aula)의 영역이 제대 공간의 전면에 위치한다. 이를 기준으로 감실 및 성체조배 공간과 세례소(Baptistry) 및 고백소(Confessional)가 원활한 동선이 되도록 위치한다.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는 감실을 포함한 성체조배 공간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리는 영역이다<sup>8)</sup><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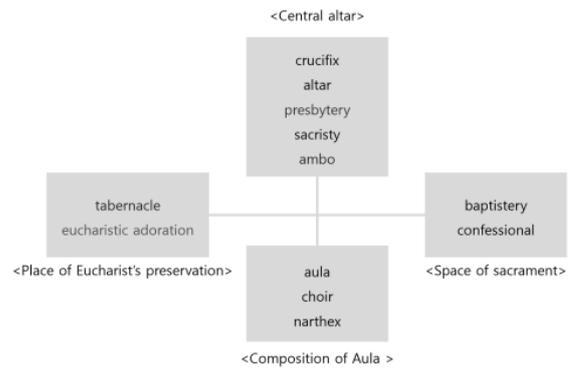


Fig.3. Composition of liturgy space.

### 3.2 성체조배실의 위치

천주교 성체조배실의 원칙에 따른 위치 기준은 교회법<sup>9)</sup>, 미사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에서 성체 보존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언급하고 있다. 교회법은 원칙적으로 성당 내 또는 경당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교의 예배실과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타실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sup>10)</sup>’에서는 성체 보존 장소가 미사의 자리가 되도록 하고 성체조배와 공경이 이뤄지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sup>11)</sup>’에서는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의 한 장소에만 위치하여야 하며, 성당구조에 적합한 고상하고 품위 있는 조용한 장소에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일부 사목자들이 별도의 방식으로 보존하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 ‘예외적 성체 보관법에 관한 지침<sup>12)</sup>’을 마련하였다. 그 기준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뉜다<sup>13)</sup><Fig. 4>.

8) 권태일, 천주교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양식과 전례공간 변화경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5), 2009, pp.164-174.  
9) 강우일, 교회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2011, pp.503-507.  
10)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 2002년에 따른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2007, p.48.  
11) Francis Arinze, 이준혜,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 소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서울, 2004, pp.115-119.  
12) 주교회의의 2008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13) 최종인, 천주교 성당 건축지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117-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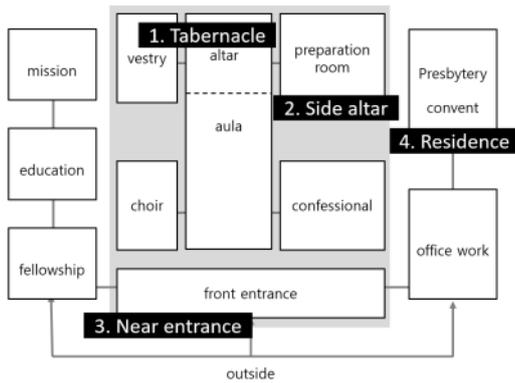


Fig. 4. Alternatives for Location of Eucharistic Adoration

또한 성체를 예외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교구장의 허가뿐만 가능하도록 강조사항으로 언급하였다. 고유한 공간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소한 경당이나 별도의 예배실에 위치하고, 벽장이나 커튼의 형태로 가리개를 설치하여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화재 등의 사고와 외부 침입,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에 있도록 규정하였다.

#### 4. 광주·전남지역 성당 내 성체조배실의 건축적 특성

##### 4.1 성체조배실의 분포

전남지역의 성체조배실이 있는 성당은 순천지구의 매곡, 조례동, 저진동, 조곡동성당과 여수지구의 선원동, 소호동, 신기동 성당에 위치한다. 또한 목포무안 지역의 용당동, 일로와 나주함평지구의 나주, 영산포, 빛가람동 성당과 중남부지구의 녹동성당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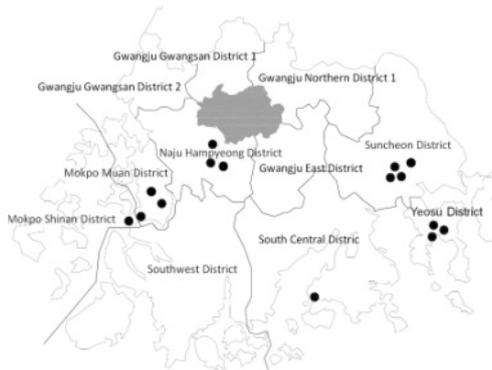


Fig. 5. Location of Cathedral that Jeonnam's Eucharistic Adoration space existed

광주지역은 광주동부지구의 계림동, 남동, 호남동과 광주시 부지구의 금호동, 농성동, 쌍촌동, 염주동, 치평동, 화정1동, 화정3동, 광주남부지구의 봉선동, 광주북부2지구의 북동, 두암동, 삼각동, 운암동, 임동, 중흥동, 용봉동, 광주광산1지구의 비아동, 쌍암동, 임곡동, 광주광산2지구의 월곡동으로 광주서부지구와

광주북부2지구가 많은 성체조배실을 가진 성당이 위치한다 <Fig. 5><Fig. 6><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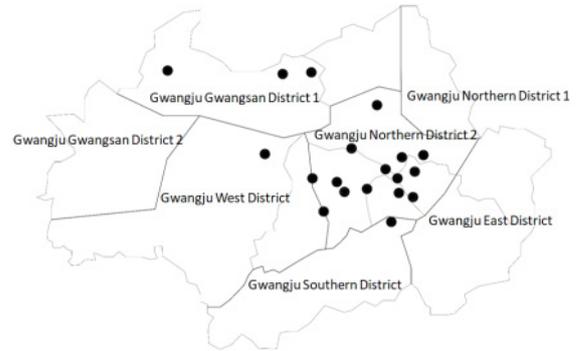


Fig. 6. Location of Cathedral that Gwangju's Eucharistic Adoration space existed

Table 3. Number of Eucharistic Adoration Space by District

지역·지구	Gwangju East	Gwangju West	Gwangju South	Gwangju North 1
개수	3	7	1	0
지역·지구	Gwangju North 2	Gwangju Gwangsan 1	Gwangju Gwangsan 2	Gwangju East
개수	7	3	1	0
지역·지구	Mokpo Muan	Mokpo Shinan	Naju Hampyeong	전체
개수	2	2	3	
지역·지구	Suncheon	Yeosu	South Central	37
개수	4	3	1	

##### 4.2 성체조배실의 양적인 변화

성체조배실의 설립 양상을 보면 1950년대와 1980년대 이후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50년대 5개의 성당에 일시적으로 수가 많아지고, 1980년대 이후 7개를 시작으로 2010년대에 10개가 만들어지며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1980년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서한 발표와 인천교구장 나길모주교가 총회를 통해 성체조배운동을 활성화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83년 교회법에서 언급함으로써 그 이후 신축되는 성당은 성체조배실 설치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외의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체조배실이 일시적으로 많이 생길 때의 연도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는 전남은 3개, 광주는 2개, 1980년대는 전남은 2개, 광주는 5개, 1990년대는 전남 3개, 광주 2개, 2000년대는 전남 1개, 광주 4개, 2010년대는 전남 4개, 광주 6개가 생겼다. 2000년대 이후 광주지역에 성체조배실이 많이 생겨났다 <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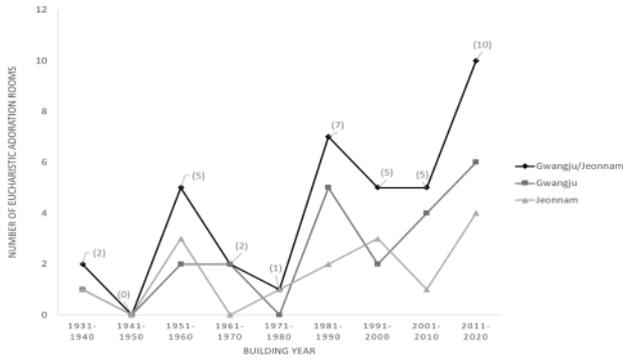


Fig. 7. Number of Eucharistic Adoration space in Gwangju·Jeonnam by Period

### 4.3 성체조배실의 규모

성체조배실 규모가 대략 20㎡ 전후의 면적을 가진 성당이 50%이다. 이 규모를 가진 성체조배실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성체조배실 면적이 큰 경우는 다른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10㎡ 이상의 성체조배실을 가진 치평동 성당의 경우는 소성당이나 강당과 같이 기능을 겸하며, 영산포, 호남동 및 봉선동의 경우 유아실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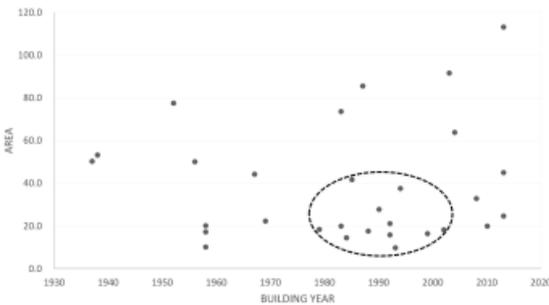


Fig. 8. Area of Eucharistic Adoration space in Gwangju·Jeonnam by Period

성당의 전체 면적 대비 성체조배실 면적 비율은 초반에는 높은 비율이었지만 그 1950년대 이후부터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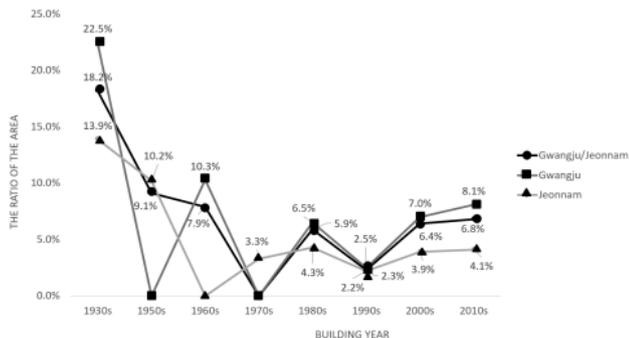


Fig. 9. Area ratio between Eucharistic Adoration compared to total area of Cathedral

내고 있다. 1930년대 초반에 건립되어진 성당의 성체조배실 면적비율은 평균 18.2%정도로 높은 편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부터는 6~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건립된 성당의 성체조배실 면적비율이 2.3%로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그 이후 다시 보편적인 비율로 건립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성당을 전남과 광주로 나눠서 살펴보면 전남은 성당의 전체 면적 대비 성체조배실 면적 비율은 3.5%를 보이고, 광주는 6.9% 비율을 보인다. 대체로 시골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도시인 광주에서의 성체조배실의 면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Fig. 9>.

### 4.4 성당 내 성체조배실의 위치 및 평면 형태적 특성

성당 내 성체조배실의 위치를 성당 전체 평면과 비교 하기 위해 성당 평면에 성체조배실을 성당별로 표기하였다. 성당의 공간은 길이 방향으로 제대(Altar)부터 회중석(Tribune)과 입구가 일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체조배실은 전면부인 제대와 회중석 사이의 양 측면, 후면부인 입구와 회중석 사이, 별도의 공간으로 주로 3가지 형태를 보인다.

제대의 좌·우측 익랑(Transsept)인 전면부에 성체조배실을 위치하는 경우는 미사를 진행한 진행 동선과 일치하여 감실(Tabernacle)로의 접근과 미사 중에 사제의 이동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감실을 제대 위에 설치하지 않고, 제대의 미사 활용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중석의 신랑(Nave)과 측랑(Aisle)을 담당하는 직사각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나주, 남동, 영산포, 북교동, 일로, 호남동, 계림동, 비아동, 농성동의 성당은 측면부에 별도의 익랑(Transsept)을 가지고 외부로 확장이 가능한 돌출된 영역을 형성한다. 또한 공간의 필요 유무에 따라 철거 및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전이공간을 위한 전실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한다. 매곡동 성당은 제대와 회중석 영역인 내부로 돌출하는 형태를 보이며, 임곡 성당은 보관실의 영역에 성체조배실이 위치한다. 소호성당은 미사시 성체조배실로 접근 가능한 동선과 외부 복도에서 신자들이 접근하는 동선을 형성하여 미사와 성체조배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배치하였다. 원형의 평면에 맞게 원호의 형태를 가진 소호동성당을 제외하고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진다.

성당의 미사 영역이 아닌 선교·친교·사무 기능을 담당하는 후면부에 위치하는 염주동, 운암동, 임동, 치평동, 선운동, 율곡동 성당의 성체조배실은 다른 실과 동등한 관계로 구분되며 외부에 돌출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출입구 및 전실과 인접 배치된 성체조배실은 접근성을 확보하여 친숙한 공간이 되고, 다른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도록 하였다. 운암동, 임동의 성당의 성체조배실은 평면과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형적인 공간에 위치한다. 두암동, 금호동 성당의 성체조배실은 회중석의 보조 기능인 유아실, 성가대, 보관실의 기능을 겸하여 설치된다.

지전동, 조곡동, 쌍암동, 증흥동, 녹동, 봉선동 성당의 성체조배실은 제대와 회중석이 있는 층이 아닌 별도 층에 선교·친교·

사무의 가능과 같이 설치하고, 신기동의 성당은 별동으로 구성되는 사제관에 성체조배실이 위치하고 있고, 접근하는 동선을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성당과 별도의 건물로 성체조배실을 갖춘 쌍촌동 성당의 경우 3.7m×7.4m의 소규모의 별동으로 건축되어 성체조배의 기능만 갖도록 하고, 접근과 전이공간을 위한 전실을 두었다<Table 4>.

Table 4. Eucharistic Adoration's location on floor plan in Gwangju·Jeonnam

위치	Naju	Maegok	Namdong	Yeongsanpo
전면 배치				
	Imgok	Bukgyo	Illo	Honam
	Gyerim	Yongdang	Biadong	Nongseong
	Soho			
후면 배치	Duam	Yeomju	Unam	Imdong
	Chipyeong	Geumho	Seonwon	Wolgok
다른 층 또는 별도 건물	Jeojeon	Jogok	Jungheung	Ssangam
	Nogdong	SsangChon	Singi	Bongseon

광주·전남지역 전체의 성당에 대한 길이 방향의 크기는 12m부터 50m의 범위에 있고, 폭은 7m에서 50m까지 분포되어 있다. 주된 길이는 15m에서 40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폭은 8m에서 25m에서 나타난다. 성체조배실을 가진 성당의 경우 길이는 25m 이상에서 분포를 보이며 폭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나타난다. 이는 소규모의 단독건물보다는 길이가 확보된 직사각형의 형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Fig.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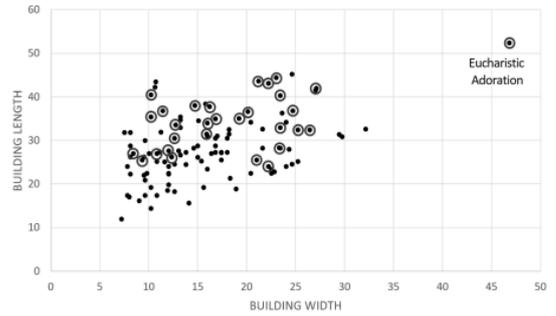


Fig. 10. Comparison with building's length and width

#### 4.5 성체조배실의 내부 특성

성체조배실의 내부는 성당을 축소해 놓은 공소(公所)와 유사한 공간 구성을 가지며, 북동, 저평동, 치평동의 성당은 좌식의 실을 가진다. 또한 전면 중심부에 감실을 두고 상부에 십자가를 위치시킨다. 채광은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엄숙함을 가지도록 하며, 소음을 차단하는 벽면 재료가 사용된다. 나주, 북교동, 일로, 호남동, 계림동, 용당동, 농성동, 매곡동, 비아동 성당은 측면에 제대를 바라보는 창을 설치하여 미사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동선을 가지며, 감실 접근을 위해 출입문을 설치하여 내부 소음이 전달되지 않고, 미사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동성당은 제대 후면부에 앱스(Apse)를 두어 성체조배를 위한 별도의 실을 구획하지 않고, 공간으로 구분하여 성체조배와 미사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영산포성당은 밝은 채광을 확보하고, 외부 공간에서 성체조배실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실과 출입구를 배치하였다. 임곡동성당의 성체조배실은 보관실과 대칭되는 제대 벽면의 후면부에 위치하여 외부 공간에서 접근할 수 있고, 벽면에 따른 제대를 바라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진다. 선운동성당의 성체조배실은 회중석에 접근하는 복도에서 접근하는 별도의 실을 설치하고, 외부와 차단된 영역에 위치한다. 쌍촌동성당의 성체조배실은 외부는 넓은 창으로 설치되었지만, 내부는 벽면을 차단한 작은 창을 설치하여 어둡다. 신기동성당의 성체조배실은 별도의 사제관에 위치하고, 사제와 수녀의 기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신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동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저전동 성당의 성체조배실은 회중석이 있는 2층과 별도로 분리하여 1층에 위치하였고, 감실을 보관하는 실과 신자의 기도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감실로 직접적인 신자들의 접근을 벽면으로 차단하고 기도실은 전면창을 통해 감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였다.

Table 5. Eucharistic Adoration's location on floor plan in Gwangju-Jeonnam

Naju	Bukdong	Namdong	Yeongsanpo
			
Imgok	Bukgyo	Illo	Honam
			
Gyerim	Yongdang	Seonwun	Nongseong
			
Maegok	Ssangchon	Singi	Jeojcon
			
Bongseon	Geumho	Biadong	Ssangam
			
Soho	Chipyeong	Jogok	
			

쌍암동성당은 2층의 회중석과 분리된 1층에 위치하고, 외부와 채광이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봉선동성당은 성체조배실에 감실을 보관하는 기능을 없애고, 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면 창을 설치하여 제대 위 감실을 바라보면서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객석은 좌식이 아닌 긴 의자를 설치하였고, 암막을 활용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금호동성당은 전면을 앱스 형태로 만들어 감실을 놓고 성체조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 전통 문의 이미지를 살려 내부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소호동성당은 원형의 성당 평면에 맞춰 원호의 실 형태를 갖추고 전면 창창을 통해 감실을 바라보고, 제대에서도 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연속하여 배치하였다. 치평동성당은 소강당의 용도와 같이하여 규모가 큰 성체조배가 가능하고 또한 소강당을 활용한 행사가 가능하게 하였다. 조곡동 성당의 성체조배실의 경우 1층 회중석과 분리되어 있다. 전면 탑 3층 부분에 별도 설치로 인해 외부와 차단하여 엄숙하게 성체조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Table 5>.

## 5. 결론

성체조배실은 중세기에 성체 보관실을 두었던 시점을 시작으로 활성화되었고,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한을 받

표하고, 인천 교구장 나길모주교가 성체조배회를 소개하면서 전국 본당에서 성체조배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상기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성당건축의 성체조배실에 대한 전례공간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천주교성당 중에서 성체조배실은 광주지역에서 광주 서부 지역과 광주 북부 2 지역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전남지역은 순천, 여수, 나무, 목포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설립된 시기를 보면 1950년대와 1980년대, 2010년에 지어진 성당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성체조배실의 규모는 대략 20㎡ 전후의 면적을 가진 성당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당의 전체 면적 대비 성체조배실 면적 비율은 전남은 3.5%를 보이고, 광주는 6.9% 비율을 보인다.

성당 내 성체조배실의 위치는 전면부인 제대와 회중석 사이의 양 측면, 후면부인 입구와 회중석 사이,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3가지 위치 타입으로 분류된다. 전면 배치의 경우 공간의 증축 및 철거를 할 수 있으며, 미사를 위한 접근 동선과 일치하여 미사 진행에 혼선이 없도록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위치한다. 후면 배치는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접근성과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하여 다른 운영프로그램과 연계를 할 수 있다. 별도 분리된 배치는 성당 운영의 목적에 맞게 위치하여 선교·친교·사무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설치한다. 성체조배실이 있는 성당의 건물 길이는 최소 25m 이상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폭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나타난다.

성체조배실의 내부는 전면 중심부에 감실을 두고 상부에 십자가를 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소음과 채광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주로 측면에 제대를 바라보는 창을 설치하여 미사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동선을 가지며, 감실 접근을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내부의 소음이 전달되지 않고, 미사시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다.

성체조배실을 두고 신자들은 그 공간적 의미와 신앙적 활용에 대한 방식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성당의 작은 규모로 인해 성체조배실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성체현시(聖體顯示, Eucharistic Exposition)에 대한 부담도 활성화를 못 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성당의 성체조배실은 선교·친교·사무의 기능보다 신앙을 관장하는 정신적인 주요 기능을 담은 실이다. 다양한 건축계획 방식으로 전례 공간을 구성하는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성당건축을 계획할 때 성체조배실의 규모, 존재하는 위치 및 형태, 내부공간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며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강길선, 한국성당건축의 공간변천에 관한 연구: 광주대교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2. 권태일, 천주교 부산교구 성당건축의 양식과 전례공간 변화경향 연구 (I): 19세기 말에서 1962년 사이에 건립된 부산교구 5개 주요 성당건축

- 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5), 2009.
3. 권태일, 천주교 부산교구 성당건축 전례공간의 3차원 시지각 인식영역 비교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 공간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3), 2012.
  4. 김정신, 가톨릭 전례공간의 감실 위치에 관한 실천실학적 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한 건축적 해석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992.
  5.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6. 김재웅, 김윤학, 광주대교구 초기 천주교 성당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1), 2020.
  7. 남연구, 성체조배를 위한 경당의 이상적인 조명 밝기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1), 2014.
  8. 이광식, 한국의 성지순례, 서문당, 1989.
  9. 정성희, 한국성당건축에 나타난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 건축된 성당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0. 최중인, 천주교성당 건축지침에 관한 연구: 수원교구의 성당규모와 공간 구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11. 천주교 광주대교구, 성당건축 이야기: 운남동 성당 16개월의 여정, 새날출판사, 2011.
  1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13. 한국카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카톨릭대사전, 한국교회연구소, 2006.
  14. 황용운, 성당건축물 외관 형태 이미지의 주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수원교구 성당건축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5. 황용운, 성당건축 전례공간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2), 2004.

접 수 일 자 : 2021. 10.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1. 11. 15

재심(1차)완료일자 : 2021. 11. 18

게 재 확 정 일 자 : 2021. 11. 23